

[종합·해설]

한나라 경선 D-6 ... **李·朴** 광주·전남 판세

李 박빙 우위... 투표율·폭로전 변수

한나라당 경선이 13일로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다소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역전을 노리고 치열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부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지지 성향을 살폈을 때 전체 20개 지역에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는 각각 9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개 지역 당협위원장은 중립을 전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당원 30%, 대의원 20%, 국민선거인단 30% 비율로 구성된다. 또 나머지 20%는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모든 면을 종합할 경우 이 전 시장이 박빙 우위가 점쳐진다.

하지만 선거인단간, 또 각 선거인단 내의 연령·지역별 투표율에 따라 승부의 희비가 갈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승패에 영향을 줄 막판 돌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원**=이 전 시장이 박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필만한 후보를 지원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충성도가 높은 골수 한나라당 당원 사이에선 박 전 대표측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선 당일에도 이 우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협위원장 및 대의원**=이 전 시장 측은 광주에서 북갑 이기연 위원장과 북을 김천국 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여수갑 김용우, 순천 김기룡, 광양·구례 취수석, 담양·장성·곡성 신현중, 고흥·보성 박재순, 장흥·영암 전양환, 함평·영광 김기욱 위원장 등 7명의 당협위원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대의원 수는 1천381명으로 전체 대의원 수 3천23명 중 45.7%를 차지한다.

박 전 대표 측은 광주에서 동구 김

상환이다. **◇국민선거인단(30%) 및 여론조사(20%)**=국민선거인단은 모집에 의한 것이어서 결국 조직력이 그 우위를 결정한다. 지방 정가에서는 이 전 시장 측이 오래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조직 확장에 공을 들여 조직면에서 박 전 대표 측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도 이 전 시장이

李, 조직력·여론 조사 앞서고 朴, '충성도 당원' 지지자 많아 당협위원장 양측 9명씩 확보

정읍 위원장, 서울 이정현 위원장, 남구 김영안 위원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남에선 목포 문병률 위원장, 여수를 심정우 위원장, 나주·화순 임근우 위원장, 강진·완도 김연식 위원장, 해남·진도 설철호 위원장, 무안·신안 안희석 위원장 등 7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의 대의원 수는 1천283명으로 전체의 42.4%다.

반면 광주시당위원장인면서 광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홍 위원장과 서갑 오비오 위원장은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분포로만 살핀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당협위원장의 뜻을 대의원이 그대로 받든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것이어서 표심의 향배는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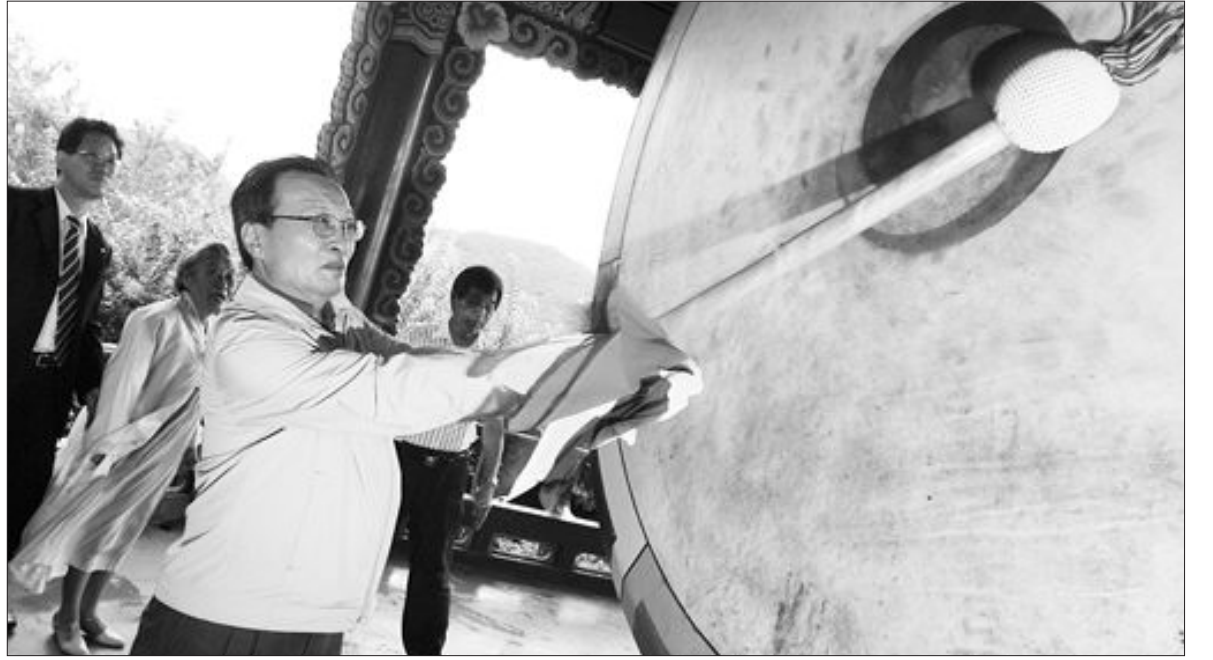
박 전 대표를 앞서왔기 일반인으로 상대로 한 득표율에서는 이 전 시장의 우위가 점쳐진다.

지난 7월 28일 광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호도에 있어 이 전 시장이 22.3%, 박 전 대표가 10.9%의 지지율을 얻었다. 11.4%포인트 차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이래 꾸준히 하락 양상을 보인 반면 박 전 대표는 올 들어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격차가 더 좁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전체 투표율이 매우 높으면 이 전 시장이, 낮으면 박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 전 시장이 강세를 보여준 짧은충도 투표장에 적극 나섰다는 의미이며, 투표율이 낮다는

■광주·전남 당협위원장 지지성향 및 대의원 수

지지후보	당협위원장(모두 원내)	대의원수
이명박 후보 (9명)	광주 (2명)	174
	북갑 이기연 위원장	218
	북을 김천국 위원장	126
	여수갑 김용우 위원장	219
	순천 김기룡 위원장	138
	광양·구례 최수석 위원장	130
	담양·곡성·장성 신현중 위원장	138
박근혜 후보 (9명)	전남 (7명)	138
	고흥·보성 박재순 위원장	119
	장흥·영암 전양환 위원장	119
	함평·영광 김기욱 위원장	138
	소 계	1,381 (45.7%)
	광주 (3명)	124
	동 김정업 위원장	139
서을 이정현 위원장	193	
남 김영안 위원장	197	
목포 문병률 위원장	130	
중립, 무응답 (2명)	전남 (2명)	162
	나주·화순 임근우 위원장	103
	강진·완도 김연식 위원장	116
	해남·진도 설철호 위원장	119
	무안·신안 안희석 위원장	123
	광주 (2명)	236
	서갑 오비오 위원장	359 (11.9%)
광산 안재홍 위원장	3,023	
소 계		



이해찬 전 총리가 12일 오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 시대 비전 선포식' 후 필라장에서 통일기원 탁목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체제가 대선보다 더 중요”

이해찬 전 총리 '한반도 시대 비전 선포식'

열린우리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12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선은 잘못되면 5년 뒤 고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만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 시대 비전 선포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과 미국, 중국의 정책이 일치하

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한 정책노선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월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5월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막후 조정역할을 맡았다. 그는 “남북평화체제 논의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중 정상회담, 이어 유엔총회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대선에서 후보들이 그간 한반도 문제를 어떤 정책과 철학으로 해왔는지 보고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와 신뢰를 갖고 호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대선 앞두고 낮은 자세로 '변신'

범여권 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특정인 배제론’의 표적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선 출마 준비를 갖추면서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유 전 장관은 “웁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혹평을 들

어왔다. 유 전 장관의 후배격인 한 386 의원은 “유 전 장관과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함께 앉았기 어렵다”고 토로했었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최근 스타일 변신을 시작했다. 최근 정동영 전 의장 측 정태권 의원이 유 전 장관

에 대해 “사기후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공격한 데 대해 측근들이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만류했다고 한다.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강연에서도 “내가 생각해 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만하더라”며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정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농담진담으로 “유시민이 개과천선했다고 써달라”고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8월 1일 첫진도 개강

특성요약특강 + 단문문제풀이

주책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문의: 207-8003, 324-8007, 977-8005

연료비가 막대한으로 불감되는 난방

공해도, 환경파괴, 불쾌한 냄새가 걱정됩니다.

TEL: 062-21262-0101

KALTOUR (유)신애여행여행사

TEL: 1577-9033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129,000원

제주도: 184,000원

제주도: 249,000원

제주도: 314,000원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1회시험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

21C 학과의 전문위원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자격증

무등고시학원 TEL: 434-7838